설전도 수련관 2 김경미 글, 센개 그림

책 읽은 날짜: 년 월 일	이름:

[책 소개]

관련 교과
3학년 1학기 국어 10. 문학의 향기
3학년 2학기 국어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4학년 1학기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4학년 1학기 국어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4학년 2학기 국어 4. 이야기 속 세상
4학년 2학기 국어 8. 생각하며 읽어요

핵심 키워드
#인터넷예절 #배려 #익명 #공감 #악플 #말하기

대상 연령
초등 3~4학년 이상

책 내용 미리보기
해별이는 '브이로거'입니다. 일기를 쓰듯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직접 편집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취미이지요. 오늘도 해별이는 새로 산 하트 롤링 펜 후기를 영상으로 찍어 올린 뒤, 절친 4인방인 세린이와 이나, 다정이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 알립니다. 자신의 영상이 조회 수도, 구독자 수도 나날이 높아지자 친구뿐 아니라 남동생인 강산이도 자신을 부러워합니다. 기분이 좋았던 해별이는 강산이에게 자신의 영상 조회 수가 5,000이 넘으면 게임기를 사 주겠다고 약속하고, 뛸 듯이 좋아하는 동생의 모습에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지요.
그런데 하트 롤링 펜의 후기 영상을 올린 다음 날,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가 해별이의 브이로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맙니다. '잘난 척 좀 그만해라. 관종 덩어리!'라는 댓글을 단 몬스터707은 이전부터 해별이의 영상에 종종 악플을 달던 사람입니다. 악플이 또 달리자, 해별이의 머릿속은 온통 꺼림칙하고 두려운 기분으로 가득차지요. 그러다 '악성 댓글 때문에 힘들다면 설전도 수련관으로 오라'는 못 보던 댓글을 확인한 해별이는 용기를 내 설전도 수련관으로 찾아가지요.
설전도 수련관에서 사부인 훅과 사범인 야미, 자기 또래로 보이는 관장인 보라를 만난 해별이는 '악플 대항 권법'을 수련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괴물이 된 몬스터707의 모습과, 먼지가 뿌옇게 끼고 오물이 여기저기 묻어 더러워진 회색 말풍선을 터뜨리며 악플에 대항하는 방법을 배우지요. 하지만 몬스터707은 악플 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악플 수준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결국 해별이는 절친 4인방 세린이와 이나, 다정이까지 의심하면서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정말 몬스터707이 절친 4인방 중 한 명일까요? 과연 해별이는 설전도 수련관의 수련을 통해 악플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악플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친구들과도 멀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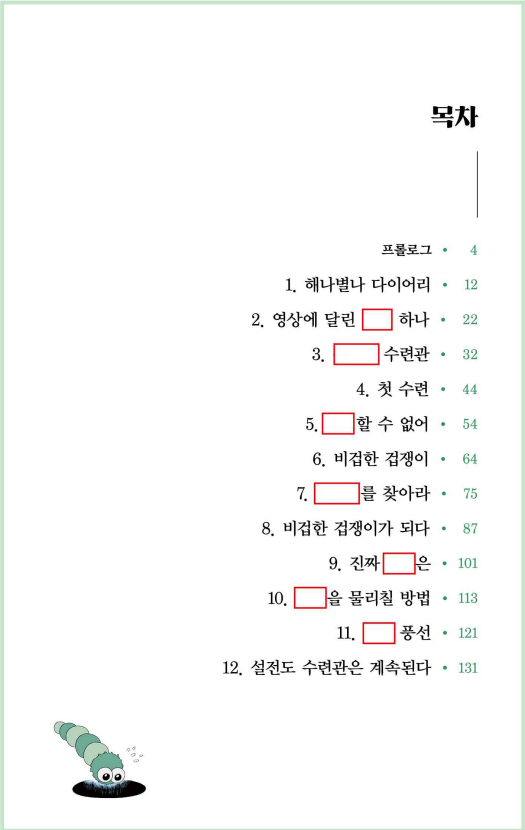
위기에 처한 해별이가 설전도 수련관을 만나 수련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친구들에게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악플에 대항하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흡입력 있는 글과 섬세한 색감의 그림으로 그려 낸 작품입니다.

책을 읽기 전 생각 펼치기]

1. 이 책의 표지에 나온 말풍선들의 내용인 '다 너 때문이야!', '진짜 싫어!', '극혐!' 등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2. 이 책의 제목은 《설전도 수련관 2. 악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지키기》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악플'의 뜻이 무엇인지 사전과 인터넷을 이용해 찾아보고,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추리해 보세요.

3. 다음은 《설전도 수련관 2. 악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지키기》의 차례입니다.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목차

프롤로그 • 4
1. 해나별나 다이어리 • 12
2. 영상에 달린 □ 하나 • 22
3. □ 수련관 • 32
4. 첫 수련 • 44
5. □할 수 없어 • 54
6. 비겁한 겁쟁이 • 64
7. □를 찾아라 • 75
8. 비겁한 겁쟁이가 되다 • 87
9. 진짜 □은 • 101
10. □을 물리칠 방법 • 113
11. □ 풍선 • 121
12. 설전도 수련관은 계속된다 • 131

보기) 설전도	몬스터	선플	악플	댓글	무시	범인

책을 읽으며 생각 들여다보기]

4. 다음은 《설전도 수련관 2. 악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지키기》에 나오는 낱말입니다. 사전에서 해당 낱말의 정확한 뜻을 찾아 적고, 책 속에서 이 낱말이 들어간 문장을 찾아 써 넣어 보세요.

1) 후기 뜻:
책 속 문장: hint) 14쪽

2) 대항 뜻:
책 속 문장: hint) 10쪽, 40쪽, 45쪽,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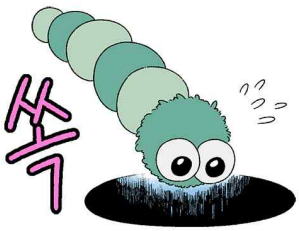
3) 의지 뜻:
책 속 문장: hint) 64쪽

4) 데면데면 뜻:
책 속 문장: hint) 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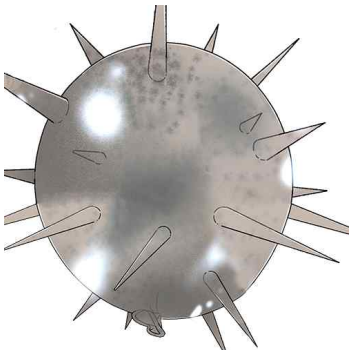
5) 두둔 뜻:
책 속 문장: hint) 90쪽

5. 아이디 '몬스터707'이 자신의 영상에 악플을 달자, 해별이는 설전도 수련관으로 가 악플에 대항하는 권법을 배우면서 악플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게 됩니다. 책 속에 등장한 아래의 그림을 잘 보고, 그림과 알맞은 설명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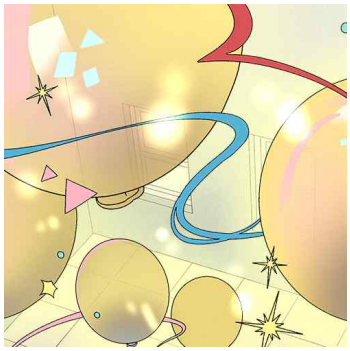
괴물의 입에서 나온 말풍선.
말 공격만으로도 저절로 터진다.



해별이가 머릿속에 떠올린 아이디 '몬스터707'의 모습.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선플 풍선.



몸이 점점 부풀던 괴물이 펑 소리와 함께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던 것. 해별이는 이것을 '비겁한 겁쟁이'라 불렀다.

6. 몬스터707의 악플이 계속될수록 해별이는 친구들이 몬스터707이 아닐지 의심합니다. 아래 해별이가 의심했던 친구들의 이름을 살펴보고, 해별이가 왜 그 친구들을 의심했는지 이유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결국 밝혀진 몬스터707의 정체는 누구였는지도 써 넣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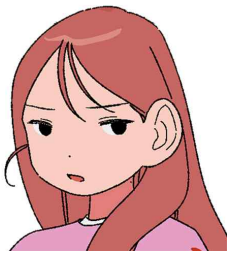
지유	
찬준	
세린	
이나	
다정	
진짜 몬스터 707의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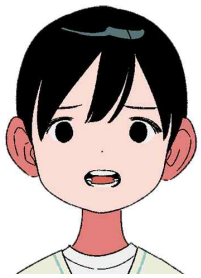
7. 다음은 책 속에 등장하는 댓글들입니다. 해별이가 설전도 수련관에서 여러 종류의 악플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받은 수련 내용을 바탕으로, 악플이라 생각되는 댓글에 X표를, 선플이라 생각되는 댓글에 O표를 그려 보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댓글	O,X	이유
펜이 엄청 예뻐요. 어디서 샀어요?		
이 식당에서 이상한 재료를 써서 맛을 낸다는데 사실인가요? 손님들이 남긴 반찬도 다시 사용한다던데.		
비빔국수는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아,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또다시 이런 글을 올리면 당신이 좋아하는 아이가 ㄱㅈㅎ라는 걸 알리겠습니다.		
해나별나를 고발합니다. 해나별나는 아트팬시로부터 상품을 공짜로 지원받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자와 시청자를 속인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해나별나 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생각 넓히기]

8. 해별이의 브이로그와 다정이네 식당 블로그에 일어났던 악플 사건을 알게 된 기자가 취재를 위해 해별이와 다정이, 이나, 세린이를 인터뷰했습니다. 내가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면서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해별	• **첫 악플이 달렸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설전도 수련관에서 수련을 받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다정	• 해별이가 자신의 브이로그에 달린 악플 얘기를 했을 때, “악플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시해.”라고 대답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때 해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친구들이 다정 학생을 위해 식당 블로그에 남긴 선플 중 가장 마음에 남는 선플은 무엇이었나요?
 이나	• 이나 학생의 영상 조회수는 10을 넘기지 못했던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다정이네 식당 블로그에 악플을 단 범인은 장사가 너무 안 돼 힘들어서 악플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세린	• 해별이가 세린 학생에게 네가 몬스터707이냐고 물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해별이가 세린 학생을 의심하기까지 했는데, 세린 학생은 몬스터707이 남긴 악플에 대댓글을 달아 해별 학생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9. 설전도 수련관에서의 마지막 수련날, 해별이는 악플을 물리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며, 대가로 다정이네 식당 블로그에 달린 힘센 말들로 선플 풍선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 보기의 악플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사연을 읽고, 여러분도 그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담아 선플 풍선을 만들어 보세요.

<보기>

친구들의 사연	선플 풍선 내용
친구1)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서 춤추는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런데 다들 외모를 지적하거나, 제 춤 실력이 별로라는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힘들어요.	
친구2) 10년 동안 기르던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너면서, 가족과 함께 강아지를 떠나보내는 순간을 찍어 영상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회 수를 올리려고 어그로를 끌었다는 등 악플을 심하게 달아요. 저는 강아지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올린 건데…….	
친구3) 제가 알게 된 재미있는 지식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지식에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누군가가 당장 물러나라고, 두 번 다시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악플을 달아서 무섭고 힘들어요.	

예시 답안

책을 읽기 전 생각 펼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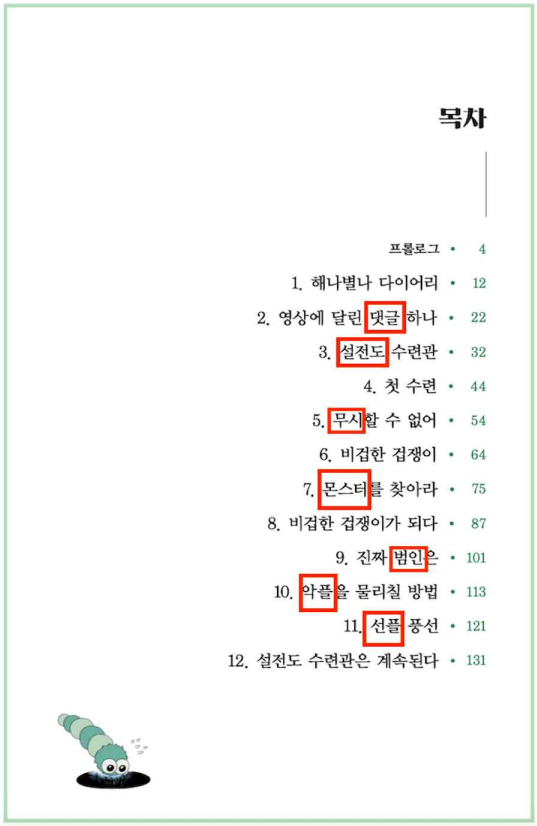
1. 이 책의 표지에 나온 말풍선들의 내용인 '다 너 때문이야!', '진짜 싫어!', '극혐!' 등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마음이 오그라들었다./ 기분이 나빴다./ 화가 났다./ 열받았다./ 속상했다./ 이런 말을 왜 했는지 궁금해졌다./ 흥미진진했다./ 호기심이 들었다.

2. 이 책의 제목은 《설전도 수련관 2. 악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지키기》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악플'의 뜻이 무엇인지 사전과 인터넷을 이용해 찾아보고,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추리해 보세요.

악플은 표준어가 아니지만,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악플은 '악성 리플(댓글)'의 줄임말로, 인터넷의 게시판 따위에 올려진 내용에 대해 악의적인 평가를 하여 쓴 댓글을 말한다. 이 책의 부제가 '악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지키기'인 것으로 봐서, 주인공이 악플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동시에 설전도 수련관에서 그 일을 극복하는 방법 또한 깨닫게 될 것 같다.

3. 다음은 《설전도 수련관 2. 악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지키기》의 차례입니다.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목차

프롤로그 • 4
1. 해나별나 다이어리 • 12
2.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 • 22
3. 설전도 수련관 • 32
4. 첫 수련 • 44
5. 무시할 수 없어 • 54
6. 비겁한 겁쟁이 • 64
7. 몬스터를 찾아라 • 75
8. 비겁한 겁쟁이가 되다 • 87
9. 진짜 범인은 • 101
10. 악플을 물리칠 방법 • 113
11. 선플 풍선 • 121
12. 설전도 수련관은 계속된다 • 131

보기) 설전도	몬스터	선플	악플	댓글	무시	범인

책을 읽으며 생각 들여다보기]

4. 다음은 《설전도 수련관 2. 악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지키기》에 나오는 낱말입니다. 사전에서 해당 낱말의 정확한 뜻을 찾아 적고, 책 속에서 이 낱말이 들어간 문장을 찾아 써 넣어 보세요.

1) 후기 뜻: 본문 끝에 덧붙여 기록함. 또는 그런 글. 뒷날의 기록.
책 속 문장: 오늘은 새로 산 하트 롤링 펜을 소개하고 사용한 후기와 소감을 영상에 담았다. / 그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건 특이하거나 예쁜 학용품 사용 후기였다. / 그래서 요새는 주로 사용 후기 영상을 올리고 있다.

2) 대항 뜻: 굽히거나 지지 않으려고 맞서서 버티거나 반항함.
책 속 문장: 그 단계에서 배우는 건 바로 '악플 대항 권법'이지. / 악플에 대항하는 권법이라고요?/ 문 앞에는 '악플 대항 수련방'이라고 적혀 있었다. / 정신없이 도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악플 대항 수련방에서 훅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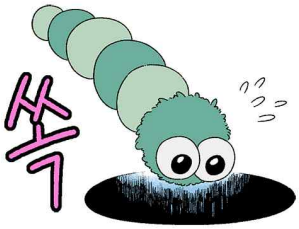
3) 의지 뜻: 다른 것에 몸을 기댐. 또는 그렇게 하는 대상. 또는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음. 또는 그렇게 하는 대상.
책 속 문장: 의지할 곳이라곤 거기뿐이었으니까.

4) 데면데면 뜻: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사로운 모양.
책 속 문장: 며칠이나 토라져서 나에게 데면데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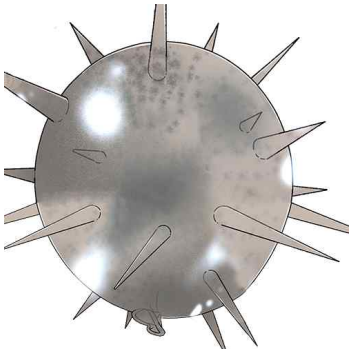
5) 두둔 뜻: 편들어 감싸 주거나 역성을 들어 줌.
책 속 문장: 속으로 애써 나 자신을 두둔하는데 훅이 그 마음을 들은 듯 말했다.

5. 아이디 '몬스터707'이 자신의 영상에 악플을 달자, 해별이는 설전도 수련관으로 가 악플에 대항하는 권법을 배우면서 악플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게 됩니다. 책 속에 등장한 아래의 그림을 잘 보고, 그림과 알맞은 설명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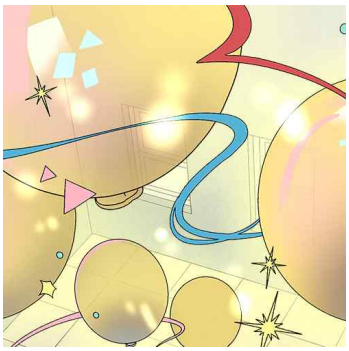
괴물의 입에서 나온 말풍선.
말 공격만으로도 저절로 터진다.



해별이가 머릿속에 떠올린 아이디 '몬스터707'의 모습.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선플 풍선.



몸이 점점 부풀던 괴물이 펑 소리와 함께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던 것. 해별이는 이것을 '비겁한 겁쟁이'라 불렀다.

6. 몬스터707의 악플이 계속될수록 해별이는 친구들이 몬스터707이 아닐지 의심합니다. 아래 해별이가 의심했던 친구들의 이름을 살펴보고, 해별이가 왜 그 친구들을 의심했는지 이유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결국 밝혀진 몬스터707의 정체는 누구였는지도 써 넣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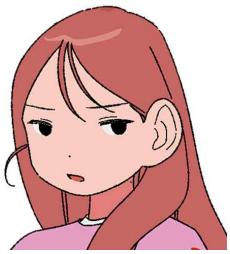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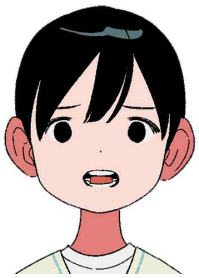
지유	전에 청소 당번을 바꿔 달라고 했는데, 바꿔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고.
찬준	해별이한테 고백했었는데, 해별이가 안 받아줘서 복수하려고.
세린	해별이의 용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
이나	해별이의 용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다 해별이 영상 조회수를 부러워했기 때문에, 해별이가 잘되는 게 배 아플 수 있다.
다정	해별이의 용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 게다가 요즘 다정이는 해별이 영상에 댓글도 안 달고, 의견도 주지 않는다. 또, 몬스터 옆에 붙은 숫자는 707이고, 다정이 생일은 7월 7일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다정이와 더 오랜 친구였던 해별이가 요즘은 세린이, 이나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져 질투가 나고 섭섭한 마음에 해별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다.
진짜 몬스터 707의 정체	? (책을 읽고 정답을 맞혀 보세요!)

7. 다음은 책 속에 등장하는 댓글들입니다. 해별이가 설전도 수련관에서 여러 종류의 악플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받은 수련 내용을 바탕으로, 악플이라 생각되는 댓글에 X표를, 선플이라 생각되는 댓글에 O표를 그려 보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댓글	O,X	이유
펜이 엄청 예뻐요. 어디서 샀어요?	O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다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식당에서 이상한 재료를 써서 맛을 낸다는데 사실인가요? 손님들이 남긴 반찬도 다시 사용한다던데.	X	식당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만들기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물어보는 것처럼 썼기 때문에
비빔국수는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아,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O	직접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썼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글을 올리면 당신이 좋아하는 아이가 ㄱㅈㅎ라는 걸 알리겠습니다.	X	상대의 비밀을 넌지시 알려주며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듯 상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해나별나를 고발합니다. 해나별나는 아트팬시로부터 상품을 공짜로 지원받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자와 시청자를 속인 것입니다.	X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거짓으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해나별나 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O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난 후 생각 넓히기]

8. 해별이의 브이로그와 다정이네 식당 블로그에 일어났던 악플 사건을 알게 된 기자가 취재를 위해 해별이와 다정이, 이나, 세린이를 인터뷰했습니다. 내가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면서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해별	• **첫 악플이 달렸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속상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봤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비난과 욕설을 듣게 되니, 화가 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 **설전도 수련관에서 수련을 받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악플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 이익을 위하거나, 재미로 남을 괴롭히는 것이니, 그런 나쁜 행동에 저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말풍선 같은 악플은 상대할 가치도, 눈길을 줄 이유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쓰레기일 뿐이니까요.
 다정	• **해별이가 자신의 브이로그에 달린 악플 얘기를 했을 때, "악플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시해."라고 대답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때 해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해별이가 많이 속상해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블로그에 악플이 달렸을 때, 그래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 **친구들이 다정 학생을 위해 식당 블로그에 남긴 선플 중 가장 마음에 남는 선플은 무엇이었나요?** '못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죠' 라고 한 해별이의 선플이요. 실제로 해별이는 저희 집에서 국수를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ㅎㅎ 올해 저랑 속마음을 가장 많이 나눈 친구라, 진심이 느껴지는 선플이었습니다.
 이나	• **이나 학생의 영상 조회수는 10을 넘기지 못했던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해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 가며 열심히 만든 영상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리지 않고 있는데, 해별이가 인기 영상으로 악플이 달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내 영상이 인기가 없어서 다행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 다정이네 식당 블로그에 악플을 단 범인은 장사가 너무 안 돼 힘들어서 악플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악플은 나쁩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든 상관없어요. 숨어서 비겁하게 거짓말을 해 가며 애먼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은 분명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친구들이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은, 정말 보고 싶지 않거든요.
 세린	• 해별이가 세린 학생에게 네가 몬스터707이냐고 물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저흰 해별이가 힘들다고 말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괜찮은가 싶었는데, 다짜고짜 저흴 의심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도대체 악플이 뭐길래, 해별이가 친한 친구들까지 의심을 하는 건지 속상했습니다. • 해별이가 세린 학생을 의심하기까지 했는데, 세린 학생은 몬스터707이 남긴 악플에 대댓글을 달아 해별 학생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물론 의심받은 건 서운했지만, 해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니까요. 전 해별이를 잘 알아요. 그리고, 몬스터707이 몰래 숨어서 모함하고, 악플을 남기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9. 설전도 수련관에서의 마지막 수련날, 해별이는 악플을 물리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며, 대가로 다정이네 식당 블로그에 달린 힘센 말들로 선플 풍선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 보기의 악플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사연을 읽고, 여러분도 그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담아 선플 풍선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의 사연	선플 풍선 내용
친구1)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서 춤추는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런데 다들 외모를 지적하거나, 제 춤 실력이 별로라는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힘들어요.	저번 영상보다 실력이 나아졌네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웃는 얼굴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핵심 안무는 정말 정확히 따라했네요/ 힘내세요. 화이팅! 포기하지 마세요!

친구2) 10년 동안 기르던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너면서, 가족과 함께 강아지를 떠나보내는 순간을 찍어 영상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회 수를 올리려고 어그로를 끌었다는 등 악플을 심하게 달아요. 저는 강아지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올린 건데…….

울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있는 강아지도 슬퍼할 거예요/ 강아지도 영원히 OO님을 기억할 거예요/ 악플들은 무시하세요. 강아지는 OO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분명 알 테니까요.

친구3) 제가 알게 된 재미있는 지식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지식에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누군가가 당장 물러나라고, 두 번 다시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악플을 달아서 무섭고 힘들어요.

사과하는 모습이 멋져요. 다음엔 정확한 영상 기대할게요! / 공부하랴, 영상 올리랴 바쁘시겠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영상 늘 잘 보고 있습니다.